

노골화되는 사드 보복... 축구계 '노심초사'

한국대표팀, 중국 원정길 안전한가?

23일 2018 러시아월드컵 아시아최종 A조 원정경기

중국 응원단과의 충돌 우려
축구협회, 사태 대비 위해
AFC 등에 신변보호 요청

축구계가 노골화 되고 있는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보복 불평이 틈가 노심초사 하고 있다.

올리 슈틸리케 감독이 이끄는 축구 대표팀은 오는 23일 중국 창사에서 2018 러시아월드컵 아시아최종예선 A조 6차전 원정 경기를 치른다.

당초 축구협회는 이 경기를 위해 전세기를 띄울 예정이었지만 중국 측이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이재철 축구협회 홍보팀 과장은 "선수들의 컨디션 유지와 원정 응원단을 위해 전세기를 검토했지만 현지 공항의 사정으로 무산됐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뿐만이 아니라 현지 창사 황화국제공항이 현재 모든 나라의 전세기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중국 측이 양해를 구해왔다"고 덧붙였다.

대표팀은 이날 경기 후 곧바로 귀국길에 오르려고 했지만 전세기가 불발되자 아시아 항공과 협의를 거쳐 출발 시간을 1시간 늦춘 새벽 1시30분에 비행기에 오른다.

월드컵 A매치를 앞두고 국가대표팀의 전세기 운항을 불허하는 건 전례가 없는 일이다. 지난해 8월 서울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중국과의 1차전 당시 중국도 전세기를 이용해 입국했다.

문제는 또 있다. 축구장은 국가 간 대결 장소다. 원정 경기인 만큼 경기 결과에 따라 현지 분위기가 과열돼 안전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경기가 열리는 창사 허룽스타디움은 5만 5000명을 수용할 수 있다. 한국 측 원정 응원단 100여명을 제외한 중국 응원단들은 홈에서 열리는 이번 경기에서 경기장을 가득 메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창사는 중국 내에서도 응원 열기가 강한 지역이다.

지난 2004년 5월 올림픽축구대표팀이 이곳에서 지역 예선을 치렀고 한국이 2-0으로 승리하자 흥분한 일부 중국 관중들이 한국 응원단으로 불명하고 오물을 던져 문제가 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측 응원단 한 명이 부상을 입어 응급처치를 받았다.

같은 불상사를 막기 위해 축구협회는 경기 당일 선수단과 원정 응원단, 그리고 현지에서 합류할 현지 응원단의 안전에 대해서도 만반의 준비를 취하고 있다.

이 과정은 "민일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아시아축구연맹(AFC)과 중국 현지 한국대사관에 선수단과 응원단의 신변 보호를 요청한 상태"다. 중국 축구협회도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김민근 기자



스페인 프로축구 FC바르셀로나 선수들이 유럽 챔피언스 리그에서 파리 생제르맹(PSG·프랑스)에 대역전승을 거두고 기뻐하고 있다.

바르셀로나 '대역전' ... PSG꺾고 8강행

UCL 16강 2차전서 6-1 대승

스페인 프로축구 FC바르셀로나가 파리 생제르맹(PSG·프랑스)에 대역전승을 거두고 10년 연속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UCL) 8강행 티켓을 거머쥐었다.

바르셀로나는 9일(한국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캄프 누에서 열린 파리 생제르맹과의 2016~2017 UCL 16강 2차전에서 6-1 대승을 거뒀다.

지난달 15일 열린 16강 1차전 원정 경기에서 0-4 패배를 당했던 바르셀로나는 8강행을 위해선 5골이 필요했다. 쉽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리오넬 메시, 루이스 수아레스, 네이마르의 'MSN 삼각편대'를 앞세워 경기를 뒤집었다.

이날 대역전승을 거둔 바르셀로나는 1, 2차전 합계 6-5로 8강에 안착했다.

버람 끝 위기에 몰린 바르셀로나는 경기 초반부터 강한 압박과 공격으로 PSG의 골

문을 노렸다.

전반 3분 만에 첫 골이 터졌다. 수아레스가 헤딩골로 포문을 열었다. 이후 행운도 따랐다. 전반 40분 PSG 수비수 레빈 쿠르자와가 자책골을 넣으면서 2-0으로 달아난 바르셀로나는 후반 5분 네이마르가 얻어낸 페널티킥을 메시가 성공시키면서 1골 차로 따라 붙었다.

위기도 찾아왔다. 후반 17분 PSG 에디슨 카비니가 만회골을 터뜨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네이마르의 골 감각이 살아났다. 네이마르는 후반 43분 프리킥 상황에서 직접 슈팅으로 4번째 골을 넣었고 후반 추가시간에 페널티킥을 성공시키며 5-1 스코어를 만들었다.

8강에 오르기 위해 1골이 더 필요했던 바르셀로나는 경기 종료 직전 세르히 로베르토의 기적적인 추가골이 터지며 환호했다.

/김민근 기자

대학스포츠총장협

"C학점 미만, 경기 못뵈다"

24일 대학리그 개막 앞두고

축구협회 "학점으로

경기 출전 여부 가리기 불합리"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KUSF)가 올해부터 평균 학점이 C학점 미만인 선수에 대해 U리그(대학리그) 참가를 불허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취지는 좋지만, 학점으로 경기 출전 여부를 가리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이 다.

9일 대한축구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KUSF가 지난해 11월과 지난 2월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왔다. 2017년부터 직전 2개 학기 평점 평균 C계로 이상 취득한 학생선수에 한해 협의회가 주최·주관 또는 승인하는 각종 대회에 출전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C제로'를 이라 불리는 이 규정은 공부하는 운동선수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2015년 만들어졌다.

KUSF가 주최·주관 또는 승인하는 축구와 배구, 농구, 핸드볼 등 4개 종목 U리그가 여기에 해당한다. 2010년 만들어진 KUSF에는 총 93개 대학이 가입돼 있다.

이에 축구협회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당장 오는 24일 U리그 개막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KUSF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협회 관계자는 "KUSF 소속이 아닌 대학들이 있는데 규정에 못 박기는 어렵다. KUSF가 U리그를 주최·주관하는 단체가 아니다. 강제적으로 선수들의 출전을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곧 협회의 입장을 정리해 KUSF에 보낼 예정이다. 만약 4학년 선수들이 올해 대회에 나가지 못하면 프로팀 진출 등 취업길이 막힌다. 이는 선수 인생에 치명적이다. 보완장치를 마련해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U리그는 지난 2008년 축구협회가 학교축구 정상화와 공부하는 운동선수를 육성하기 위해 만든 대회다.

올해 U리그에 참가하는 대학은 85개교다. 그 중 KUSF 소속 대학은 51개교. 나머지 34개교는 회원이 아니다. 형평성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KUSF는 반발하고 있다. U리그 예산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KUSF를 통해 지급된다는 점을 근거로 승인 대회라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KUSF는 "U리그도 우리가 주최하는 대회다. 대회 참가를 원한다면 비 회원대학도 회원대학과 동일한 조건을 따라야 한다. 만약 시행되지 않는다면 내규에 따라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해 앞으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김민근 기자

국제무대에 출전할 한국 탁구대표팀 감독 선임

남자부 김택수 · 여자부 안재형

김충용 · 정현숙, 각각 단장 · 총감독 맡아

올해 아시아선수권대회와 세계선수권대회에 출전할 탁구 남녀 국가대표팀을 이끌 사령탑에 김택수 미래에셋대우 감독과 안재형 대한탁구협회 이사가 선임됐다.

대한탁구협회는 남자 대표팀 감독에 김택수 감독을, 여자 대표팀 감독에 안재형 협회 이사를 선임했다고 9일 밝혔다.

김택수 선임 남자 대표팀 감독은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 이후 7년 만에 대표팀 지휘봉을 잡게 됐다.

새롭게 여자 대표팀 사령탑을 맡게 된 안재형 선임 감독은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서 남자 대표팀 감독을 역임했다. 협회는 여자 대표팀에 탁구 강국 중국

기술을 전수할 수 있도록 중국 코치를 영입할 계획이다.

남자 대표팀은 채은석 코치가 선임돼 김택수 감독을 보좌한다.

지도자 및 협회 임원으로서 풍부한 지도 경험과 행정력을 갖춘 김충용, 정현숙이 각각 단장과 총감독을 맡는다.

협회는 대표팀의 경기력 극대화 및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국가대표 운영지원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국가대표 운영지원단은 선수단의 전략 수립 및 전력 분석을 지원하고 전반적인 선수단 훈련 및 국제대회 파견을 지원한다. /김민근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쏘옥 뺄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